

# 이 빠진 호랑이

문국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법의학자

**통** 풍(通風)이라는 병은 문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병변이 있는 부위에 매우 심한 통증——을 느낀다 해서 지어진 병명이다. 원인은 혈액중에 요산이 많아져 즉 고요산혈증(高尿酸血症)으로 인해 요산결종(結種)이 발가락 또는 손가락의 관절에 침착되어 야기되는 내과질환이다.

그런데 통풍에 걸리는 사람은 대체로 그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적극성을 가지고 생각을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기며, 시련이나 투쟁을 서슴치 않고, 지도성이 있으며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풍환자의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공격성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기업가, 회사나 조직의 관리직이나 지도자적 입장이 있는 사람, 유능한 학자나 연구가, 스포츠 맨, 재벌가 등에서 많이 본다.

통풍을 옛날에는 부자병이라 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로 육류나 생선을 일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서 많이 보기 때문이었다.

통풍이라는 병이 식사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더 부추기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품은 야심과 경쟁심에 의해 고요산혈증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통풍에는特效약이 있다.

즉 코르히틴이나 알로프리놀과 같은 약을 쓰면

혈중의 요산치는 잘 내려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약물요법에 의해 통풍환자에는 성격 변화가 야기된다. 이 약을 쓰기 전까지는 매우 공격적이었던 환자 성격이 마치 '이 빠진 호랑이' 같이 양순해진다.

그래서 어떤 기업가 통풍환자는 약물치료를 받아 격렬했던 발가락의 통증은 가셨는데 그전과 같은 야심차고 정열적인 사업 수완은 사라지고 마치 바보처럼 하루 종일 방안에 머물고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혈중(血中) 요산의 농도와 사람의 공격성은 밀접한 것으로 그 공격성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자기에 대한 공격성으로 강박적으로 자기몸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기 입술이나 혀 또는 손가락을 스스로가 깨무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표정은 명랑하고 매우 활발한 활동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자기에 대한 공격성을 '벧슈 나이한 증후군'이라고 하며 대체로 유전성 경향을 보인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으로 유명 중대사건들의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혈액의 요산치를 검사하면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사람의 공격성과 관계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비교적 단순한 화학적 물질로써 요산은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 사납고 쉽게 공격성을 보이고 하는 것도 요산 때문이다.

